

# ‘ㄴ·ㄱ>ㄴ’ 비원순모음화에 대하여

여 은 지 (전북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음성적 동기가 불분명한 비원순<br>모음화의 해석 |
| 2. 비원순모음화의 양상                             | 4. 결론                          |
| 2.1. [+round] 관련 원순모음화 및<br>비원순모음화        |                                |
| 2.2. 음성적 동기가 불분명한 ‘ㄴ><br>ㄴ’, ‘ㄱ>ㄴ’ 비원순모음화 |                                |

## 국문초록

비원순모음화는 원순모음이 원순성을 잃고 비원순모음이 되는 현상으로,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17-18세기에 발생한 ‘ㄴ>ㄴ’, ‘ㄱ>ㄴ’의 변화이다. ‘ㄴ>ㄴ’, ‘ㄱ>ㄴ’ 비원순모음화는 17-18세기에 비어두 음절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그간 비원순모음화는 주로 17세기 무렵 발생한 원순모음화의 확산과 원순성 자질에 의한 이화 작용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17-18세기 발생한 ‘ㄴ, ㄱ>ㄴ’ 비원순모음화가 원순성이라는 음성 환경이 없이 발생했으며 이 현상이 비어두 음절을 중심으로 상당히 폭넓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시기의 ‘ㄴ, ㄱ’가 하향이중모음이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화는 단순모음 ‘ㄴ, 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단순모음 ‘ㄴ’의 비원순모음화가 ‘ㄴ>ㄴ’가 아닌 ‘ㄴ>ㄴ’로 발

달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보선>버선) ‘ㄴ, ㄱ>ㄴ’의 비원순모음화를 ‘ㄱ, ㄷ>ㄴ’ 비원순모음화의 2차적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ㄱ>ㄴ’의 제1 단계 변화 이후 원순모음화가 발달하던 시기에 비어두 위치가 약음절 위치이기 때문에 뚜렷한 음성 조건이 없더라도 이러한 비원순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ㄴ · ㄱ>ㄴ, 비원순모음화, 하향이중모음, 단순모음화, 모음 체계

## 1. 서론

본고에서는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ㄴ>ㄴ’, ‘ㄱ>ㄴ’ 비원순모음화의 발생 과정을 국어 모음 체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원순성에 의한 이화로 설명되는 것과 설명되지 않는 비원순모음화를 비교함으로써 이 변화에 대한 음운론적 설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비원순모음화는 원순모음이 원순성을 잃고 비원순모음이 되는 현상으로,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17-18세기에 발생한 ‘ㄴ>ㄴ’, ‘ㄱ>ㄴ’의 변화이다.<sup>1)</sup> 기존 연구에서 비원순모음화는 ‘뷔틀->비틀->비틀-[攪]’의 예를 통해

1) ‘ㄴ, ㄱ>ㄴ’ 비원순모음화는 이후에 ‘ㄴ>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여은지(2016: 182)에 의하면 ‘ㄱ’의 변화 양상은 ‘ㄱ>ㄴ>ㄴ, ㄱ>ㄴ>ㄴ, ㄱ>ㄴ’ 등으로 나뉘며, 현대 국어에서 해당 모음들은 모두 단모음으로 남았다(/i/, /e/, /u/). ‘ㄱ>ㄴ’의 과정 없이 ‘ㄱ>ㄴ’로 바로 가는 예가 있다면 그것은 ‘ㄱ’을 단순모음으로 볼 근거가 될 것이나, 그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ㄱ>ㄴ’의 직접 변화로 본다면 중부 방언에서는 on-glide 탈락에 의한 단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ㄱ’[uj]의 부음이 아닌 핵음이 탈락하는 부자연스러운

주로 순자음에 의한 이화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순자음에 의한 이화는 주로 이와 같은 어두에서의 ‘ㄱ>ㄴ>ㅣ’의 예로 나타난다. ‘뚝귀>독귀>독기>도끼[斧]’ 같은 경우 역시 원순모음의 연쇄에 의한 이화로 이해된다.<sup>2)</sup>

그러나 ‘반되>반디>반디[螢], 바되->버티->버티-[柱], 여위->여의-[瘦, 渴]’ 등과 같은 비어두에서의 비원순모음화에서는 순자음이나 원순모음이 변화의 조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ㄴ>ㄴ’, ‘ㄱ>ㄴ’ 비원순모음화는 17-18세기에 주로 비어두 위치에서 발생하였다.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이어지는 ‘ㄴ, ㄱ’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 용언의 경우 ‘ㄴ, ㄱ’를 포함한 15세기 어사 중 ‘ㄴ, ㄱ’ 모두 단순모음화한 환경은 주로 용언의 어두 위치이며 비어두에서는 다른 모음으로 변화한 것이 일반적이다(여은지 2016: 37). 이때 ‘ㄴ, ㄱ’의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비어두 위치에서 ‘ㄴ’로 변화한 것이다.<sup>3)</sup>

‘ㄴ, ㄱ’의 비원순모음화, 특히 단순모음 ‘ㄴ’의 비원순모음화는 ‘ㄴ>ㄴ’가 아닌 ‘ㄴ>ㅣ’로 발달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보선>버선) ‘ㄴ>ㄴ’의 비원순모음화는 주목할 만하다. 17-18세기에 나타나는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ㄴ>ㄴ’로의 비원순모음화는 모두 비어두 위치에서 일어났으며, 변화를 겪은 어사가 7개인데 그 중 6개 어사가 다시 ‘ㄴ>ㅣ’로 변화하였다(여은지 2016: 53). ‘ㄴ>ㅌ’의 비원순모음화는 어두에서만 일어난 변화로 그 시기 역시 19세

---

음운 과정을 상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2) 본고에서 다루는 ‘ㄴ, ㄱ’의 비원순모음화 논의는 ‘ㄴ, ㄱ’ 비원순모음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 y/ 단순모음화 이전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ㄴ, ㄱ’의 비원순모음화를 다루면서 비원순모음화라는 교체 현상과 탈락에 의한 이중모음의 단순모음화 현상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ㄴ, ㄱ>ㄴ’ 비원순모음화라는 교체 현상은 /oj, uj/ > /uj/ 또는 /∅, y/(혹은 /we, wi/) > /e, i/ 모두를 포함하는데, 본고에서는 전자의 현상을 가리키는 데 비원순모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3) 이들 비원순모음화는 18-19세기에 ‘ㄴ>ㅣ’ 단순모음화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ㄱ>ㄴ’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ㄴ>ㅣ’ 단순모음화로 이어졌으며(불취>불희>뿌리[根], 뷔틀다>비틀다>비틀다[攪]), 일부 ‘ㄴ>ㅌ’의 변화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술위>술의>수레[車], 뷔다>비다>베다[樵]).

기 말부터이다.<sup>4)</sup>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와 어두 위치가 구별된다는 점, 변화 시기가 17-18세기와 19세기 말로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labial]과 [+labial]로 구별된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ㄱ’의 경우 역시, ‘여스>여우’, ‘아스>아우’처럼 음운론적 조건이 없는 원순모음화 사례는 있어도 비원순모음화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보인 순자음의 유무로 구별되는 ‘ㄴ, ㄱ’의 두 가지 비원순모음화 사례를 검토하고 후자의 비원순모음화를 전자의 비원순모음화처럼 조건화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비원순모음화의 환경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의미를 국어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어사를 통해 ‘ㄴ, ㄱ’ 비원순모음화의 시기, 환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세기 국어사 자료에서 해당 모음을 포함한 어사들을 추출하여 통시적 변천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sup>5)</sup>

## 2. 비원순모음화의 양상

### 2.1. [+round] 관련 원순모음화 및 비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란 원순모음이 원순성을 잃고 비원순모음이 되는 현상으로,

- 
- 4) ‘ㄴ’을 포함한 15세기 어사의 통시적 변화 유형을 보면 ‘ㄴ>ㄱ’의 변화는 양순음을 선행 자음으로 하는 어두 음절이라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일어났다. 예외적으로 선행 자음이 없는 어사에서 ‘ㄴ>ㄱ’의 변화가 하나의 어사에서 발견되나 구체적인 변화 시기는 문증되지 않는다(여은지 2016: 53). 즉 양순음에 의한 이화라는 음운론적 동기가 없는 ‘ㄴ>ㄱ’ 비원순모음화는 찾기 어렵다.
  - 5) 논의에 사용된 ‘ㄴ, ㄱ’이 포함된 어사는 여은지(2016: 16-17)에 제시된 총 122개이다. 예문 검색에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어휘역사말뭉치(최종 수정: 서형국CoHok\_141127)를 기본적인 자료로 삼고, 검색 프로그램으로는 깜짝새(SynKDP 1.5.5)를 사용하였다. 말뭉치의 검색 결과는 영인본과 디지털한글박물관의 이미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원순모음화의 발생과 관련지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의 논의에서도 비원순모음화를 살피기에 앞서 원순모음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순자음 뒤에서 발생한 ‘->ㅌ’ 원순모음화는 17세기 초 문헌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 《역어유해》에 이르러 많은 예가 나타난다(전광현 1967: 85-86). 따라서 원순모음화는 17세기 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ㅌ

- ㄱ. 무르케<1686구황촬\_가,보유,002a>
- ㄴ. 니부자리<1690역어유,상,024a>

(2) ->ㄱ

- ㄱ. 可憐 뵤다<1748동문해,하,033b>, 惡他 뵤위ㅎ다<1775역어류,020b>
- ㄴ. 摠 우뵤다<1748동문해,하,018a>, 구뵤진<17xx한청문09:75b>

통시적으로 원순모음화는 15세기 국어에서 ‘ㄴ, ㅌ’ 등의 원순모음이나 ‘ㅁ, ㅂ, ㅍ’ 등의 순자음을 동화주로 하여 ‘·>ㄴ’, ‘->ㅌ’ 등으로 바뀐 동화 현상으로 그 시작을 확인할 수 있다.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조사 ‘으로>오로’ 및 어미 ‘-ㄷ록>-도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ㄷ록’은 16세기 문헌에서는 《속삼강행실도》 등에 몇 차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록’으로 합류되었다(이기문 1959/1978: 82-83).

(3) 원순모음에 의한 동화

- ㄱ. 으로>오로
- 소늑·로<1447석상03,14a>
- 손토·보·뵤어·나<1447석상13,52b>
- ㄴ. -ㄷ록>도록
- 저·므·도·록<1447석상03,34a>
- :남·드·록<1447석상09,10b>

(4) 순자음에 의한 동화

- ㄱ. 외롭-(孤)>외롭-
- 외롭·고<1447석상06,05a>
- 외로윈<1481두시초21,38b>
- ㄴ. 물(衆)>물
- 무·레<1447석상06,05a>
- 물 중시·이<1459월인석,02,038a>

위의 예에서 (4ㄴ)을 제외한 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음절에서 일어난 역행 동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중세 국어 시기 역행 원순모음화가 모두 비어두에서 일어난 이유를 백두현(1992: 231)에서는 15-16세기에 ‘으:오’, ‘으:우’의 변별성이 뚜렷하여 어두에서는 순자음과 결합하는 환경에서도 중화되지 못하고 위치적 강도가 약한 비어두에서만 중화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곽충구(1990: 85)에서는 원순성이 관여된 통시적 혹은 공시적 음운 현상을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범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빌려 오면 다음과 같다.

(5)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범주

1) 원순성에 의한 동화

구분	동화주	피동화주	변화, 변동	동화의 방향	예
원순화	순자음(ㄱ, ㅂ, ㅍ, ㅃ)	으	으>우, 으→우	인접, 순행	물>물(水)
		으	으>오	" "	물>물(馬)
	원순모음(오, 우)	으	으>오	원격, 순행 인접, 역행	모기>모괴(蚊) 구울>고울(郡)
비원	순자음(ㄱ, ㅂ, ㅍ, ㅃ)	위	위>의	인접,	뛰->피-(發)



이화를 거쳤음을 밝혔다(최전승 1975: 494-532). 이 연구는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발생이 'β>w'라는 음운 변화에 의한 원순성 동화 규칙과 이차적인 이화 규칙에 의해 계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백두현(1992: 231-232) 역시 15세기에 순자음을 동화주로 하는 비어두의 역행 원순모음화를 제1 단계 원순모음화로 설정하고 17세기 후기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순행 원순모음화를 제2 단계 원순모음화로 설정함으로써 두 단계의 원순모음화가 내면적 상관성을 가졌음을 인식하였다. 그와 관련한 것이 15세기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순행 원순모음화이다. 15세기부터 확인되는 원순모음화 '→ㅌ'(·무·레(衆)<1447석상06,05a>)는 '→ㅌ'가 원순성에 의해 대립쌍을 이루는 자연 부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김완진 1963, 이병근 1970a, 1976, 이승재 1977, 곽충구 1980). 이에 대하여 백두현(1988, 1992: 236)에서는 15-16세기에도 이미 '→ㅌ'의 대립이 있었음에도 순자음 뒤 '→ㅌ' 원순모음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의 비음운화에서 초래된 '·:ㅌ' 대립의 붕괴가 '→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 17세기 초 원순모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핀 논의들에서 원순모음화는 원순모음과 비원순모음의 대립이 붕괴됨으로써 발생한 변화로 설명되었다. 즉 원순모음화는 중세 국어 시기부터 유지되어 오던 '·:ㅌ', '→ㅌ'의 원순성 대립 관계가 '·'의 비음운화 이후 약화된 결과이며, 17세기 이후 모음 체계에서 '으:우'가 원순성의 유무를 변별자질로 하는 대립 관계를 새로 형성하게 되면서 확산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원순모음화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이해되었다. '→'의 원순모음화가 '·'의 비음운화와 필연적인 관계를 지녔다는 점에서 송민(1998: 43)에서는 둘의 관계를 '계기적 유기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비원순모음화는 원순모음이나 순자음에 의하여 원순성을 잃는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주로 원순모음화의 확산에 의한 반사 작용으로 설명되었으며, 원순성 자질에 의한 이화 작용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비원순모음화의 발생 원인으로는 주로 17세기 무렵 발생한 원순모음화의 확산이 지목되어

왔다. 다만 ‘으’의 소멸 이후에는 ‘ㄴ>·’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ㅍ’의 후설모음화가 맞물려 ‘ㄴ>ㅍ’(보선(襪)>버선, 몬져(先)>먼저), ‘ㅌ>ㅍ’(꿔(發)>피-)<sup>6)</sup> 등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sup>7)</sup> 그리고 이들 비원순모음화는 [+round]를 변화의 조건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화 현상으로 정의된다.

곽충구(1980)에서는 ‘술위>술의[車], 불휘>불희[根]’ 등의 예에서 보이는 비원순모음화 현상을 원순성 자질에 의한 이화 작용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이병근(1976)에서 중세 국어에서 원순성에 의한 자연 부류를 이루던 ‘-:ㅌ, ·:ㄴ’의 대립이 ‘·’의 비음운화 이후 무너지면서 ‘몬져>먼저, 보선>버선’ 등의 ‘ㄴ>ㅍ’ 비원순모음화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종갑(1987) 역시 비원순모음화의 동기를 원순모음화 세력의 강화 때문으로 보았다. 오광근(2005)에서는 15-16세기에 발생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를 모음에 의한 변화와 자음에 의한 변화로 나누어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역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동화주를 원순모음과 순자음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하였다.

최전승(1999)에서는 전기 중세 국어 시기 특수 어간 교체 등에서 보이는 원순모음화(\*나미>나모(木), 몬져>몬저) 및 후기 중세 국어에서 보이는 원순모음화(스매>소매(袖), 우후로→우후로) 그리고 중세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 모음 체계에서 ‘으:우’의 새로운 원순성 대립 관계가 성립하면서 발생한 원순모음화 등이 별개의 변화가 아니라 개별 어휘에 대한 규칙 확대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산된 동화 현상임을 논한 바 있다. 대개의 논의에서와 같이 최전승(1999)에서 이해하고 있는 원순모음화는 순자음과 원순모음을 동화

6) ‘꿔(發)>피-’의 변화에서 ‘꺄’는 /y/나 /wi/가 아닌 /uj/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ㅌ>ㅍ’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7) 이는 ‘으’와 ‘우’가 이전 단계에서 원순성의 대립을 이루었음에도 17세기 이후 문헌어에 출현하는 원순모음화는 ‘->ㅌ’에 한정되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으’와 ‘우’에 적용되는 원순모음화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 중앙어에서는 원순모음화 규칙의 입력이 되는 ‘우’가 ‘아’로 합류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김완진 1975: 3, 백두현 1992: 233).

주로 하며, 이는 비원순모음화로도 이어진다.

## 2.2. 음성적 동기가 불분명한 ‘ㄴ>ㄹ’, ‘ㄱ>ㄴ’ 비원순모음화

2.1에서 보았듯이 비원순모음화는 순자음이나 원순모음에 의한 동화로서, 그리고 비원순모음화는 원순성에 의한 이화로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ㄴ>ㄹ’, ‘ㄱ>ㄴ’ 역시 원순성에 의한 이화로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ㄴ>ㄹ’, ‘ㄱ>ㄴ’은 원순성에 의한 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sup>8)</sup>

### (6) 순자음이나 원순모음에 의한 비원순모음화

#### 1) 비어두(+원순모음 뒤)

##### ㄱ. 불휘[根]>(쌀휘)>쌀희

불희를<1579삼강행\_東,열030b>, 쌀희를<1586소학언,6,133a>

불희를<1632가례해,7,023b>

##### ㄴ. 술위[車]>수레

술의<1612연병남,001b>

##### ㄷ. 돛귀[斧]>독귀

독귀<1690역어유,하,17b>

독스귀<1790몽유하,12b>, 도피를<1796경신해,24a>

#### 2) 어두(+양순음 뒤)

##### ㄱ. 뷘-[空]>비-

빈<1635화포언a,17a>

빈<1765박신해,1,59a>

##### ㄴ. 뷘-[樵]>베-

빅여<1698신자초,015b>

빅고<1787병학지\_?1,06a>

##### ㄷ. 뷘-[攪]>비틀-

빅트리<1690역어유,상,047a>

8) 서론에서 밝혔듯이 ‘ㄴ>ㄹ’의 변화는 비어두 음절에서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예가 없다.

(6-1)은 비어두이면서 원순모음이 선행하는 위치에서 발생한 비원순모음화이다. ‘불휘>썰회’는 (6-2)와는 시기와 환경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ㄱ>ㄴ’의 변화 발생 시기는 어두와 비어두 모두 17세기이나, ‘불휘>불회>썰회’의 경우에는 ‘ㄱ>ㄴ’이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16세기 말 문헌에서 확인되는 ‘불휘’에서 보이는 ‘·>ㅡ’에 의한 역표기는 제2 음절의 모음이 이미 /ㄴ/였음을 의미한다.

‘썰회’의 비원순모음화는 17세기에 발생한 ‘돛귀>(돛기)>독귀’의 비원순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제1 음절 모음 ‘ㄱ’에 의한 이화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5세기 국어에서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가 이미 있었다는 점에서 비원순모음화 역시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6-2)의 형태들은 모두 17세기에 ‘ㄱ>ㄴ’ 변화를 겪었고, 19세기 이후 ‘ㄴ>ㄹ’을 거쳤다. 예컨대 ‘뽕틀->뽕틀->비틀-’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들 모두 양순음이 ‘ㄱ’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화에 의하여 ‘ㄱ>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에서 보았듯이 원순모음화의 동화주가 순자음이거나 원순모음인 경우, 그리고 비원순모음화의 원인을 원순성 자질에 의한 이화 작용으로 명시할 수 있는 경우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ㅃ>ㅍ’에 의한 원순모음화 및 그에 의한 비원순모음화는 15-16세기에 이루어졌다(최전승 1975). 둘째, ‘ㅇ’의 소멸 이후 모음 체계가 조정된 이후의 비원순모음화는 17세기 무렵으로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원순모음과 비원순모음의 대립쪽에 변화가 생기면서 ‘ㄴ>ㄹ’, ‘ㅌ>ㄷ’의 비원순모음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병근 1976, 광충구 1980). 셋째, [+labial] 자질과 관련한 원순모음화 및 비원순모음화는 어두 위치에서 주로 발생하였다(오종갑 1987).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비원순모음화는 환경과 시기, 그 내용 면에서 위의 사실과 다르다. 17세기 무렵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의 대립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ㄴ>ㄹ’ 비원순모음화와 관련하여 하향이중모음의 경우에도 ‘ㄴ>ㄹ’(/oj/>/aj/)가 나타날 것이 기대되나 우리는 ‘ㄴ>ㄹ’을 보게 된다.

‘ㄴ>ㄹ’은 19세기 말 어두 위치에서, ‘ㄴ>ㄹ’은 17-18세기 비어두 위치에서 각각 나타나는 것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ㄴ>ㄹ’은 19세기 말부터 어두 위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배고의<1896독립신0825,1>, 성배<1898매신문0727,3>), 이것으로 우리는 단순모음 /ø/와 /e/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sup>9)</sup>

비원순모음화에 대하여 원순모음화에 대응한 이화 현상 이상의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비원순모음화가 있을 법한 음운 현상이나 원순모음화에 비하여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보편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술위>술의’, ‘불휘>불희’ 등의 예는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순자음이나 원순모음에 의한 이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순자음이나 원순모음이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비원순모음화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또한 오종갑(1987)에서 원순모음화와 마찬가지로 비원순모음화 역시 비어두 음절보다 어두 음절에서 더 일찍 진행되었다고 기술하였으나 본고에서 살펴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음절에서 17세기 초부터 나타난다. 더불어 원순성에 의한 이화에 해당하는 (6) ‘불휘’의 비원순모음화는 16세기 말의 문헌에서 출현하기 시작한다. (7)의 ‘뒤>씩>띠’[뉘]와 같은 사례는 원순성이 인접하

9) 양순음 뒤 ‘ㄴ>ㄹ’ 변화 과정에 대하여 광충구(1990: 92)에서는 ‘poj>pø>pe’와 ‘poj>paj>pe’의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유필재(2006: 196)에서는 양순음 뒤에서 발생한 ㄴ>ㄹ의 변화가 19세기 말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 과정을 ‘oj>aj>e’로 볼 수는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ㄴ’의 경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19세기 말에 ‘ㄴ>ㄹ’로 직접 변화하였으며, 어두 음절이면서 순자음이 선행할 때로 그 환경이 제한된다. ‘뉘’가 ‘뉘>ㄴ>ㄹ’의 단계를 거쳤으며, 18세기 이후 ‘뉘다>뉘다>베다’, ‘술위>수리>수레’ 등 용언과 체언, 어두와 비어두에 관계없이 일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 (1) 뉘다[樵]>베다  
 빅여<1698신자초,015b>  
 베논<1896독립신0411,2>
- (2) 술위[車]>수레  
 술의<1612연병남,001b>  
 수레로써<1758종덕해,중,011b>

지 않을 때에도 해당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며, ‘반되>반디>반디’  
[螢]는 비어두 음절에서의 비원순모음화를 보여 준다.

(7) 원순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비원순모음화

1) 비어두

ㄱ. ㅅ>ㅅ

a. ㅍ[茅]>ㅍ

ㅍ불휘<1489구급간,3,94b>

ㅍ불휘<1868의중손,006a>, ㅍ<1880한불자,476>

b. 등위[蠱]>등의

등의<1613동의보,02,009b>, 등의<1690역어유,하,035b>

등의<1748동문해,하,043a>

c. 여위다[瘦, 渴]>여위다

여위<1700유합영,020a>, 여의나<1746자성해,自省編外,024a>

ㄴ. ㄷ>ㄷ

a. 반되[螢]>반디

반디<1810몽유편,상,18a>, 반디<1880한불자,300>, 반디<18xx광제물,草  
隰,004a>

b. 들의[鬣]>다리

鬣 들의 테<1527훈몽叢,중,012b>

cf. 鬣 ㅍ머리 俗稱 다리<18xx광제물,인도,002a>

c. 바되-[拄]>벗티-

벗티위 擔閣<1657어록해\_초,010a>, 벗티오라<1677박통해,중,055b>

批者 버티오다<1690역어유,하,045a>

2) 어두

ㄱ. ㅅ>ㅅ

a. ㅍ-[躍]>ㅍ-

ㅍ여<1617동국신,동삼층1,016b>

그녀 ㅍ다<17xx한청문09:18a>

b. ㅍ놀-[跳]>ㅍ놀-

ㅍ노논<1676첩해초,6,008b>, ㅍ노다<1690역어유,하,047a>

ㄴ. ㄷ>ㄷ

사례 없음

어두 위치에서 ‘ㄴ>ㄹ’ 비원순모음화는 나타나지 않고, ‘ㄱ>ㄴ’ 역시 어근 ‘ㅍ-’에 한해서만 나타나는데, 이마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음성 환경이 없는 비원순모음화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ㅁ-’계 어두자음군이 원순모음화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곽충구(1985)에서는 ‘ㅁ’가 어두 자음군 /pk’/이며, /pk’/의 어두 /p/가 원격 순행 동화의 동화주로서 ‘ㅍ->ㅍ(貫)’의 재구조화를 야기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어두 자음군 /pk’/의 /p/가 원순모음화의 동화주로 기능한 이 변화는 모음에 선행하는 자음군 중 한 자음이 다른 하나의 개재자음을 건너뛰고 동화주가 된 변화로서, ‘ㅁ’와 ‘ㅁ’ 등에서는 이러한 원순성 동화가 일어난 예가 없이 ‘ㅁ’ 어두 자음군에서만 적용된 수의적 변화로 지적되었다(곽충구 1985: 219).<sup>10)</sup>

그런데 (7-2ㄱ) ‘ㅍ->ㅍ-’의 사례는 어두 자음군의 ‘ㅁ’이 마치 비원순모음화의 음성적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 역시 곽충구(1985: 222)에서 ‘ㅍ->ㅍ(貫)’의 재구조화의 시기로 추정된 17세기로 일치한다. 결국 음성 환경이 없는 ‘ㄴ>ㄹ’, ‘ㄱ>ㄴ’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음절에서만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7-1ㄱ) ‘ㅍ>ㅍ(뿔불휘<1489구급간,3,94b>)’는 15세기 후기에 나타나는 비원순모음화로, ‘ㅍ->ㅍ-’나 곽충구(1985)에서 확인되는 시기보다 2세기가량 빠르다. 유일한 예이기는 하나 이러한 출현을 (7-2ㄱ)의 사례와 동일한 음운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원순모음화 및 비원순모음화는 17세기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존재한 것이 된다. 백두현(1988, 1992: 235)에서도 16세기에 소수 이나마 순행 원순모음화 ‘으>우’가 존재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sup>11)</sup>

특이한 점은 순자음을 동화주로 하는 순행 원순모음화가 17세기에 발생했

10) 방언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ㅍ>ㅍ(荏), ‘ㅍ리->꾸리-(包)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곽충구 1985: 220).

11) 순자음을 동화주로 하는 원순모음화는 15-16세기에 비어두 위치에서 발생한 역행 원순모음화(님금>님금, 제1 단계 원순모음화)와 17세기 초에 발생하여 17세기 말에 완성된 순행 원순모음화(믈>믈, 제2 단계 원순모음화)로 구분된다(백두현 1992: 231-232). 제2 단계 원순모음화는 어두와 비어두 모두에서 다수 실현되었다.

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순행 원순모음화에 대응하는 비원순모음화가 15세기부터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17세기에 어두 위치에서 순행 원순모음화 및 그에 상응하는 비원순모음화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가 같은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7-1ㄱ)의 예는 순행 원순모음화가 발생한 시기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2.1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백두현(1992: 237-239)에서는 김완진(1963), 이병근(1970, 1976), 곽충구(1980) 등에서 원순모음화 ‘으>우’의 발생을 ‘으:오’, ‘으:우’가 대립쌍을 이루고 있었던 모음 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기존의 제설들이 ‘으:우’가 원순성의 대립쌍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15-16세기에는 순자음 뒤에서의 ‘으>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하여 순자음 뒤 ‘으>우’의 발생 원인을 ‘으’의 비음운화 과정에서 비롯한 대립 관계의 변화로써 설명하였다. (7-1ㄱ)의 사례는 이러한 설명에 대한 돌발적인 출현이라 할 수 있다.

### 3. 음성적 동기가 불분명한 비원순모음화의 해석

원순성 동화로 설명되는 원순모음화에 대응하는 짝으로서의 비원순모음화는 그 음운론적 동기를 원순성에 반발한 이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 환경을 찾기 어려운 비원순모음화의 경우 그 원인 역시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2.2에서 살펴본 비원순모음화의 특징은 비어두 위치에서 ‘ㄱ>ㄴ’, ‘ㄴ>ㄴ’의 변화가 일어난 어사들이 표면적으로 음성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ㄱ>ㄴ’ 비원순모음화가 17세기 초부터, ‘ㄴ>ㄴ’ 비원순모음화는 17세기 말엽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어두 위치의 양순음 뒤에서 발생한 ‘ㄱ>ㄴ’ 비원순모음화 역시 17세기 문헌에서 출현이 확인된다.

(8) 양순음 뒤 <ㄱ>-

빈[空]<1635화포언a,17a>

빅트리[捩]<1690역어유,상,047a>

<표 1>의 내용과 같이 양순음 뒤에서의 ‘ㄱ’은 18세기에 비원순모음화한 뒤 다시 19세기 말엽 ‘ㄱ>ㅣ’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한다(유필재 2006: 198-199).

시 기	17세기 말엽	18세기		19세기 말엽
		중엽 [어두]	말엽 [비어두]	
변 화 내 용	양순음 뒤 ‘->ㄱ’			
	① (어두) 양순음 뒤 ‘ㄱ>ㅣ’	⇒	② 양순음 뒤 ‘ㅣ>ㄱ’	③ 양순음 뒤 ‘ㄱ>ㅣ’

<표 1> 양순음 뒤 ‘ㄱ’의 변화

유필재(2006: 199-201)에서는 양순음 뒤에서 일어난 위의 변화에서 ‘ㄱ>-’의 변화 시기가 짧고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컨대 ‘뷔-(空)’의 비원순모음화를 ‘뷔->비~뷔->뷔->비’(空) 즉, ‘ㄱ>->ㅣ’가 아닌 ‘ㄱ>ㅣ’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이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19세기 말 ‘ㄱ’의 음가를 단순모음 /y/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성 환경이 없는 비원순모음화의 경우 ‘ㄱ’이 ‘ㅣ’로 직접 단순모음화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어렵다. 음절 위치나 선행 자음의 종류가 특정 패턴을 보인다는 점, 최전승(1986, 1999)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음성 환경이 없는 원순모음화 사례가 아주 적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ㄱ, ㄴ>->ㅣ’의 변화 과정이 국어사에 있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음성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 비원순모음화에 대하여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17세기 초 양순음에 후행하는 ‘->ㄱ’ 원

순모음화와의 관계 문제이다. 15-16세기에 이미 ‘-:ㅓ’의 대립이 있었음에도 원순모음화가 산발적으로만 나타나다가 ‘·’의 비음운화에서 초래된 ‘·:ㅓ’ 대립의 붕괴 이후 ‘-:ㅓ’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고 그 결과 17세기 초 원순모음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백두현 1988, 1992: 236), 이때의 가정에는 ‘·’의 비음운화 시기 설정과 관련한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의 비음운화 시기가 17세기 초 ‘->ㅓ’ 원순모음화가 확산되기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완진 1975: 3, 백두현 1992: 233, 송민 1994: 43).<sup>12)</sup> 두 번째 관점은 ‘·’의 비음운화 시기를 18세기 중엽으로 설정했을 때의 가정으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17세기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규칙은 처음에는 일반성이 떨어지는 음운 규칙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규칙이 확산되면서 ‘·’의 비음운화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본다(이기문 1977: 193, 곽충구 1994: 270).

17세기 초에 발생한 ‘->ㅓ’ 또는 ‘-|>ㅓ’ 원순모음화는 양순음이라는 음성 환경을 조건으로 하는 동화 현상이다. 변화 원료 시기인 17세기 말엽 순자음에 후행하는 원순모음화는 어두와 비어두 환경에 상관없이 고루 나타난다(김상돈 2000: 29-33). 그리고 원순성이라는 음성 조건하에 발생한 비원순모음화는 이화 현상으로, 이 역시 ‘뵤->뵤-(空, 1635화포언a,17a)’, ‘뵤궤>뵤궤(斧, 1690역어유,하,17b)’ 등의 예를 통하여 원순모음화 시기 및 환경과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6, 7)의 예를 참고하면 순자음에 의한 비원순모음화는 주로 어두에서 발생했으며, 원순모음에 의한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위치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달리 말하면 비어두 위치에서 순자음은 비원순모음화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는 비어두 위치에서 순자음 뒤의 ‘-’가 표면음성으로 나타나기 어려웠다는 것이기도 하다.

12) 김완진(1975: 3)에서는 중부 방언에서 순자음 뒤 원순모음화가 ‘으’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에 반하여(블>블, 플>플) 경상 방언에서는 ‘으’ 역시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이(폴>폴, 뭍다>뭍다, 뵤다>뵤다) 중부 방언에서는 이미 ‘으’가 소실된 후에 원순모음화가 발생했지만 남부 방언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날 때 ‘으’가 아직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오히려 비어두에서는 음성 조건이 없음에도 원순모음화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최전승(1986: 252)에서는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에서 ‘그늬[鞞]>그늬’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원순모음화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이 통상적인 음성 환경을 보이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예를 빌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그늬(춘, 동, 112), 근위줄(高大, 春, 298), 근우줄(同, 296, 306)

원순성이 인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이 현상은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의 사례 다수를 비롯해 ‘감즈’(薯), ‘장귀’(將樞)의 방언형 가운데 어간말 ‘귀’를 보이는 방언형 ‘감귀’(함남 함흥, 《한글》 제6권 7호, p. 46.), ‘장귀’(同, p. 48.)/\*장구(价川, 《한글》 제7권 5호, p. 23.) 등이 1930년대 북부 방언에서 발견된다(최전승 1983: 333, 1986: 253).

유사한 사례로 ‘방귀>방귀’의 변화도 있다.

(10) 방귀[放氣]>방귀

屍 방귀<18xx광재물,形氣,005a>, 방귀똥<1897한영자,410>

19세기 말엽에 나타나는 ‘방귀>방귀’의 변화는 한자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귀’의 변화가 원순성에 의한 동화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음성 환경이 보이지 않음에도 출현하는 원순모음화의 예들은 음성 환경이 없음에도 나타나는 비원순모음화 사례들을 뒷받침해 준다.<sup>13)</sup>

그리고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에서는 음성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비원순모음화뿐 아니라 원순성을 조건으로 하는 원순모음화도 있었다(최전승 1986: 254).

13) 이 사례에는 변화를 유발한 음성적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결과적으로 후설모음화로 볼 수도 있고 원순모음화로 볼 수도 있다. 후설모음화든 원순모음화든 동화주가 없기 때문에 그 용어가 적절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와 우리가 살피고 있는 비원순모음화 사례들을 함께 검토했을 때 후설모음화보다는 원순모음화로 취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11) ㄱ. 두 무릅을 쏘구리고(춘, 남, 70)

- ㄴ. 손조 지촉 더 우슈워(우스워, 춘, 남, 86)
- ㄷ. 북구려워(춘, 남, 112)
- ㄹ. 목구라나(춘, 남, 70)

시기도 다르고 방언권도 다르지만 최전승(1986)에서 보인 이러한 사례들은 원순모음화가 활발한 음운 현상으로 존재할 때 음성 조건이 없는 환경에서도 원순모음화나 비원순모음화가 동반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음성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비원순모음화는 왜 비어두 위치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원순성이라는 음성 조건이 없는 경우 비원순모음화는 어두 위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어두 위치에서 ‘ㄱ>ㄴ’ 비원순모음화를 경험한 ‘뛰-[躍]>뛰-’(띄여<1617동국신,동삼총1,016b>), ‘뛰놀-[跳]>뛰놀-’(띄노논<1676첩해초,6,008b>, 띄노다<1690역어유,하,047a>)의 경우 어두 자음군의 ‘ㅂ-’을 이화의 음성적 동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성적 동기가 없는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위치에 한정된다.

양순음에 후행하는 비원순모음화가 주로 어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반면 음성 환경이 보이지 않는 비원순모음화가 주로 비어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비어두가 의미 전달의 역점이 약화되는 약음절 위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최전승 1999: 106). 즉 비어두 위치가 약음절 위치이기 때문에 뚜렷한 음성 조건이 없더라도 이러한 비원순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어두 음절에서 해당 비원순모음화가 주로 발견되는 현상은 ‘ㄴ, ㄱ’의 통시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향이중모음 ‘ㄴ, ㄱ’의 통시적 발달 과정을 보면 중세 국어 시기의 /oj/, /uj/가 [ø] 또는 [we], [y] 또는 [wi]로 변화한 환경은 주로 용언의 어두 위치이며, 비어두 위치에서는 그 외의 모음으로 변화한 것이 일반적이다(여은지 2016: 37-38).<sup>14)</sup> 15세기 문헌에

14) ‘ㄱ, ㄴ’ 등의 음가가 단모음인지 상향이중모음인지 판단을 보류하기 위하여 음성 표기를 하지 않는다.

서 ‘ㄴ’이 포함된 어형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보면 ‘ㄴ’은 어두 위치에서는 ‘ㄹ, ㄷ, ㄱ’ 등으로 변화하였고, 비어두 위치에서는 ‘ㄹ, ㅁ, ㄷ, ㄴ, ㄱ, ㄴ’ 등 다양한 모음으로 변화하였다.<sup>15)</sup> ‘ㄱ’ 역시 [y, wi]로 남은 어형은 주로 용언의 어두 음절에 포함된 경우이고, 이때 어두와 비어두의 비율은 3:1 정도이다. ‘ㄴ, ㄱ’의 변화 유형이 어두와 비어두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위치의 음운론적 기능 부담량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즉 기능 부담량이 큰 어두 위치에서는 본래의 형태나 소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지만 비어두 위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특히 ‘ㄱ’이 어두에서 ‘ㄱ>ㄴ’을 겪은 반면 ‘·>—’ 변화에 따라 원순성의 대립쪽에 변화를 입은 ‘ㄴ’을 포함한 ‘ㄴ’이 어두에서 ‘ㄴ>ㄴ’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어두 위치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비어두 위치에서보다 더 저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 제1 단계 변화로 ‘ㄴ:·’ 대립이 ‘ㄴ>—’로 대체되면서 발생한 불안정성 때문에 ‘ㄱ>ㄴ’보다 ‘ㄴ>ㄴ’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 문제는 비원순성의 선행 자음과 비원순모음화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하여 이들 비원순모음화의 선행 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ㄱ>ㄴ

- ㄱ. 동의[羸]<1613동의보,02,009b>
- ㄴ. 썩[茅]<1880한불자,476>
- ㄷ. 여월<1700유합영,020a>, 여의나[瘦, 渴]<1746자성해,自省編外,024a>

(13) ㄴ>ㄴ

- ㄱ. 벋[挂]<1677박통해,중,055b>
  - ㄴ. 반디[螢]<1810몽유편,상,18a>
- cf. 鬚 판머리 俗稱 다리<18xx광재물,인도,002a>  
鬚 들의 테<1527훈몽觀,중,012b>

15) 정인호(2004)에서는 비어두에서도 하향이중모음은 축약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자물쇠, 내외, 참외 등).

우선 (12L) ‘뽀>뽀>뽀’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문헌상에 ‘뽀’는 나타나지 않으며, 확인되는 ‘ㄱ>ㄴ’ 변화의 결과는 ‘뽀’(1880한불자,476)이다. 이때의 ‘뽀’는 어두 자음군의 ‘ㅂ’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14)의 예와 같이 ‘ㅃ, ㅍ’은 17세기 후반 ‘ㅍ, ㅍ’으로의 혼기로써 이들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화했다(이기문 1972: 62).

(14) 뽀>뽀[茅]

뽀와<1481두시초05,042b>

茅草 뽀<1748동문해,하,046a>, 뽀로뽀<1792증수해,3,045a>

그 외에 16세기 초 ‘뽀외[鬣]’로 나타나던 형태가 19세기 이후 ‘다리’로 변화한 예를 통해서도 ‘ㄴ>ㄴ’의 변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sup>16)</sup>

어휘 타입 수가 많지는 않으나 비원순모음화를 반영한 예들은 ‘ㅍ, ㅍ, ㄷ, ㄷ, ㅌ’ 등을 선행 자음으로 한다.<sup>17)</sup> 이 중 ‘등의[廔]’, ‘여의-[瘦, 渴]’를 제외하면 ‘ㄱ>ㄴ’, ‘ㄴ>ㄴ’ 비원순모음화 과정의 공통적인 음성 조건으로는 [+coronal] 자질을 찾을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coronal] 자질과 비원순모음화와의 관련성과 음성적 동기 등은 찾기 어려우며, 사례의 타입 수가 적기 때

16) 문헌상으로 ‘ㄴ>ㄴ’의 직접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뽀외’에서 ‘다리’로 이어지기까지는 ‘ㄴ>ㄴ’의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17) 언어 연구에서 빈도는 구체적인 출현 빈도를 가리키는 ‘토큰 빈도(token frequency)’와 사용 패턴의 빈도를 가리키는 ‘타입 빈도(type frequency)’로 구분된다(Stefan A. 2011: 2138).

18) ‘ㄴ>ㄴ’ 변화를 보이는 예에는 ‘뽀외-[鬣]>말리-’, ‘알외-[誥]>알리-’ 등 사동형도 있다. 이들의 변화는 사동 접미사의 형태적 교체로 볼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들은 이들 접미사 결합형이 일련의 음운 변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도 보여 준다.

(1) 뽀외여<1608두창집,下,014b>

뽀외오다<1775역어보,055a>

(2) 알외라<1612연병남,022a>

알외시미로다<18xx명성현5:34b>

문에 선불리 [+coronal] 자질을 음성 조건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논의가 있다. 최전승(1986: 256-259)에서는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에서 음성적 동기가 불분명한 원순모음화를 보이는 일련의 어휘들이 어간 내부에서 ‘-르->-로->-루-’를 반영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ㄴ’의 변화가 중세 국어에서 보이던 ‘ᄃᄅ(粉)>ᄃ로’, ‘여스(狐)>여오’ 등의 비자동적 교체를 비롯, ‘벼르(崖)>벼로, 사르잡(虜)>사로잡-’ 등 ‘·>ㄴ’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이전에 어간말에서의 ‘->ㄴ’을 광충구(1980: 100), 최전승(1983: 322-325)에서는 어간말 모음으로서의 ‘으’를 기피하는 형태소 구조 제약 또는 표면 음성 제약의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최전승(1986: 259)에서는 이 변화의 영역이 용언 어간 ‘-르-’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으’ 회피 제약은 비어두 음절의 ‘·>ㄴ’ 변화 이후 ‘·’와 ‘-’의 중화로 인하여 ‘-’의 성격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 음성 환경이 없는 원순모음화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가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ㄱ, ㅋ>ㄴ’ 비원순모음화인가. 최전승(1999: 106)에서는 근대 국어의 원순모음화와 비슷한 시기 출현하기 시작한 ‘ㄱ>ㄴ’ 비원순모음화가 근대 국어 모음 체계에서 형성된 ‘-:ㅈ’ 대립의 새로운 위상을 확인시켜 주는 현상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때의 ‘ㄱ>ㄴ’은 순자음에 후행할 때뿐 아니라 비어두 음절과 같은 약음절 위치에서도 가능했으며 동일 조건에서 단순모음 ‘구’를 ‘-’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원순모음화와 구별된다(최전승 1999: 106).<sup>19)</sup> 그리고 우리는 17-18세기에 ‘ㄱ>ㄴ’뿐 아니라

19) 그러나 17세기 초 ‘ㄱ, ㅋ’의 음가가 /uj/, /oj/였을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ㅈ, ㅊ’가 해당 변화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는 17세기 초부터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ㅈ’ 원순모음화의 확산에 어울리지 않는다. 순행 원순모음화에 대응하는 비원순모음화가 15세기부터 발견되는 특이한 사례를 2.2의 (6)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순모음의 비원순모음화는 아니다.

‘ㄴ>ㄹ’의 비원순모음화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중세 국어 시기 ‘ㄴ’와 ‘ㄹ’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자연부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ㄴ>ㄹ’에 상응하는 ‘ㄴ’의 비원순모음화는 ‘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17세기 초에는 비어두 음절에서 ‘ㄴ>ㄹ’의 변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ㄴ>ㄹ’이 나타날 수 없었다. ‘ㄴ>ㄹ’이 아닌 ‘ㄴ>ㄴ’로 비원순모음화가 나타나는 것은 17세기 이후 문헌어에 출현하는 원순모음화 현상에 ‘ㄹ’이 제외되고 ‘ㄴ’만이 관여한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음운 변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더라도 음운 과정의 일반성이 확보된다면 음운 현상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음성 환경이 없는 비원순모음화 현상이 제한된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시기에 걸쳐 다양한 어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남을 포착할 수 있다.<sup>20)</sup> 그리고 이 현상이 원순모음화의 발달 과정에서 보편적인 사실로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17세기 초가 원순모음화의 세력이 강해지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결론

기존 연구들에서 비원순모음화는 ‘뷔틀->비틀->비틀-[燃]’의 변화와 같이 주로 순자음에 의한 이화로 이해되어 왔다. 이 현상은 조음위치 자질에 의한 이화라는 뚜렷한 음성적 동기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17-18세기 발생한 ‘ㄴ, ㄴ>ㄹ’ 비원순모음화가 원순성이라는 음성 조건 없이 발생했으며, 기존의 비원순모음화가 어두 음절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이 현상이 비어두 음절을 중심으로 상당히 폭넓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시기의 ‘ㄴ, ㄴ>ㄹ’

20) 그러나 이러한 비원순모음화는 어두 음절에서 발생한 순자음 관련 비원순모음화와 달리 음성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산발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으며 일정한 규칙성이나 변화의 확산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향이중모음이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화는 단순모음 ‘ㄴ, ㄷ’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단순모음 ‘ㄴ’의 비원순모음화가 ‘ㄴ>ㄴ’이 아닌 ‘ㄴ>ㄷ’로 발달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보선>버선) ‘ㄴ, ㄷ>ㄴ’의 비원순모음화는 ‘ㄴ, ㄷ>ㄴ’ 비원순모음화의 2차적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3장에서 음성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비원순모음화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를 짚어 보았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17세기 초 양순음에 후행하는 ‘->ㄷ’ 원순모음화와의 관계 문제이다. 17세기 초 발생한 ‘->ㄷ’ 또는 ‘ㄴ>ㄷ’ 원순모음화는 양순음이라는 음성 환경을 조건으로 하는 동화 현상이다. 변화 완료 시기인 17세기 말엽 순자음에 후행하는 원순모음화는 어두와 비어두 환경에 상관없이 고루 나타나며, 원순성이라는 음성 조건하에 발생한 비원순모음화 역시 원순모음화 시기 및 환경과 일치한다. 그런데 순자음에 의한 이화로 설명되는 비원순모음화는 주로 어두에서 발생했으며, 그렇지 않은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위치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비어두 위치에서 순자음은 비원순모음화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둘째, 순자음에 의한 이화로 설명되는 비원순모음화가 주로 어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반면 음성 환경이 분명하지 않은 비원순모음화가 주로 비어두 위치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비어두가 의미 전달의 역점이 약화되는 약음절 위치이기 때문이다. 원순모음화가 발달하던 시기에 비어두 위치가 약음절 위치이기 때문에 뚜렷한 음성 조건이 없더라도 이러한 비원순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원순성]의 선행 자음과 비원순모음화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비원순모음화를 반영한 예들은 ‘ㅍ, ㅌ, ㄷ, ㄹ, ㅍ’ 등을 선행 자음으로 하며, 이들 중 ‘등의[羸]’, ‘여의-[瘦, 渴]’를 제외하면 ‘ㄷ>ㄴ’, ‘ㄴ>ㄴ’ 비원순모음화 과정의 공통적인 음성 조건으로 [+coronal] 자질을 찾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곽충구. 1980. 십팔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 곽충구. 1985. ‘ㅼ-’의 통시적 변화와 방언분화. 국어학 14. 215-235.
- 곽충구. 1990.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 김상돈. 2000. 근대국어의 원순모음화에 대하여. 牛岩斯黎 10. 27-36.
- 김완진. 1963.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63-99.
- 김완진. 1975. 전라도 방언 음운론의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어학 2.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현. 2007. 非圓脣母音화와 ‘ㄴ’의 低舌化. 진단학보 103.
- 남광우. 1974. 원순모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국어학 2. 31-38.
- 백두현. 1988. ‘아, 오, 으, 우’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국어학 17. 177-202.
- 백두현. 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총서 19. 과주: 태학사.
- 백두현. 1994. 구축과 원순모음화. 외골 권선재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송민. 1994. 근대국어의 음운론적 인식. 동양학 24/음운 II. 태학사. 35-58쪽. 재수록.
- 송민. 1998. 근대국어의 음운론적 인식. 동양학 24.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음운 II. 태학사. 35-58. 재수록.
- 여은지. 2016.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광근. 2005. 15·6세기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종갑. 1987.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영남어문학 14. 69-85.
- 유필재. 2006. 양순음 뒤 ‘ㄴ>ㄹ, ㄱ>ㄷ’ 변화에 대하여.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193-209. 과주: 태학사.
- 이근규. 1979. 중세국어의 비원순모음화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17·18.
- 이기문. 1972.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이병근. 1970a.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 9. 151-167.
- 이병근. 1970b.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 9. 375-390.

- 이병근. 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73. 1-14.
- 이승재. 1977. 남부방언의 원순모음화와 모음체계. 관악어문연구 2. 401-420.
- 정인호. 2013. 하강이중모음 ‘외’의 變化와 方言 分化. 방언학 18.
- 최전승. 1975. 중세국어에서의 이화작용에 의한 원순성 자질의 소실에 대하여. 국어연구 33./국어사와 국어방언사와의 만남. 역락. 397-549 재수록.
- 최전승. 1983. 표면음성제약과 음성변화- 어간말 이중모음 ‘iy’의 통시적 발달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44-45. 315-340.
- 최전승. 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과주: 한신 문화사.
- 최전승. 1999.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질. 국어 문학 34. 103-150.
- 小倉進平. 1940. Outline of Korean Dialects. Toyo bungo.
- 河野六郎. 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京: 東都書籍.
- Ramstedt, G. J.. 1928.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emoires de la Societe Finno-ougrienne. Vol. LVIII(58). 441-453.
-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Stefan A. Frisch, 2011. “Frequency Effects”,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onology 4. 2137-2163. Malden: Wiley-Blackwell.

【Abstracts】

## On the oj · uj > ɰj unrounding

Yeo Eun-ji

Unrounding is a phenomenon that a rounded vowel becomes a non-rounded vowel losing its roundedness. This study is going to deal with the changes of ‘ㅟ>ㅓ’ and ‘ㅢ>ㅓ’ that took place in the 17-18th century. Unrounding of ‘ㅟ>ㅓ’ and ‘ㅢ>ㅓ’ mostly occurred in syllables with no anlaut during the 17-18th century.

Up until now, unrounding has been explained mainly with the spread of becoming rounded vowels that took place in the 17th century or dissimilation attributed to the property of roundedness. This study, however, has found that unrounding of ‘ㅟ, ㅢ>ㅓ’ that occurred in the 17-18th century was not attributed to the phonetic environment of roundedness and this phenomenon did occur very widely and mostly in syllables with no phonological condition. At that time, ‘ㅟ’ and ‘ㅢ’ should have been falling diphthongs, but it is noticeable that the change is a phenomenon hard to be found in simple vowels, ‘ㅓ’ or ‘ㅓ’. Particularly with the fact that the simple vowel, ‘ㅓ’, became a non-rounded vowel, not as ‘ㅓ>ㅓ’ but as ‘ㅓ>ㅓ’ (ex. poʃən > pəsən), it is hard to determine unrounding in ‘ㅟ, ㅢ>ㅓ’ is a secondary characteristic of unrounding in ‘ㅓ, ㅓ>ㅓ’. In the period that unrounding occurred after the first-step change of ‘ㅓ>ㅓ’, because the non-anlaut position is a weak syllable, it seems that even if there was no distinct phonetic condition, such

unrounding could be applied.

Key words : oj·uj>uj, unrounding, falling diphthong, monophthongization, vowel system

이 논문은 2017년 5월 2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6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6월 2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